‘국난 극복’ 염원…고성 건봉사 염불만일회 1년

건봉사서 8월 14일 정진법회

758년 신라 발징 화상 비롯한 31명 스님, 1820명 신도 효시 7차 염불만일회로 2021년 입재 국가무형문화재 등록 추진 예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성 건봉사 철야정진에서 염불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


만장을 앞세우고 스님과 불자들이 아미타불을 염호하며 정진하고 있다.

신라 경덕왕 17년인 758년 금강산 건봉사에서는 발징 화상을 비롯한 31명의 스님과 신도 1820명이 1만일 동안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미타만일연회(彌陀萬日蓮會)를 구성, 염불만일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염불만일회는 일제 강점기 독립을 기원하고 국운 융창을 위해 6차례 열리는 등 국난 위기때마다 열렸다. 최근에는 동산반야회를 비롯해 성남 정토사 등 다양한 곳에서 염불만일회를 구성해 수행문화를 진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원조격인 건봉사에서 8월 14일 ‘제7차 염불만일회’ 1주년 기념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정진 법회는 지난해 8월 24일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입재한 데 이은 것으로 7차 염불만일회의 전체 기간은 약 27년 5개월이다. 이날 정진법회에 참여한 50여 사부대중은 1년간 이어온 염불기도의 공덕을 회향하며, 2년차 입재를 맞아 코로나 극복과 남북평화가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건봉사 7차 염불만일회에는 약 300여 전국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1주년 기념 정진법회 및 철야정진기도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인원만 참여토록 했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은 “7차 염불만일회를 통해 건봉사는 아미타 염불 도량으로 면모를 갖추게 됐다. 염불을 통해 코로나 종식과 세계 평화를 지속 발원하자”며 “아미타 부처님 염송을 법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각 가정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계속 하여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년 차 정진법회 전날인 13일부터는 철야정진도 펼쳐졌다. 철야정진에서는 현담 스님의 ‘아미타부처님’ 주제 법문, 정근, 새벽예불, 천도재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발징 화상 등이 염불만일회를 진행한 등공대의 참배는 무더위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 희망자들로만 이뤄졌다. 건봉사는 이날 2년 차 입재와 함께 동참 사부대중이 매달 두 차례 건봉사 철야정진 기도와 함께 가정에서 정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진에 동참한 이정순 건봉사 신도회장은 “1주년을 맞아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서 정진하길 바랐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진은 평소에도 계속 하는 만큼 도반들이 각자 위치에서 계속 정진하고, 그 가피로 코로나가 종식돼 다음 정진기도에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담 스님은 “건봉사는 염불만일회 시원도량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통을 지닌 곳으로 향후 염불만일회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종식 발원 자비방생 법회 열리다

하동 쌍계사 8월 14일 고성 당항포서 방생법회


쌍계사가 개최한 제32회 자비방생 대법회에서 불자대중들이 코로나 종식을 발원하고 있다.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8월 14일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제32회 코로나종식을 위한 자비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자비방생 대법회에는 하동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쌍계총림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남해 보리암 성조 스님, 율원장 종성 스님, 대중 스님 및 본·말사 사찰 임원진, 최만림 행정부지사, 정점식 국회의원,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 각 사찰 임원진 및 박해덕 경남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전 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법회서는 범패 공연(당주 선훈 스님, 염불원장 승원 스님), 자비방생법회 축원, 육법공양(쌍계사 선다회), 개회식, 삼귀의, 대회사(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환영사(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내빈 소개, 청법가, 고산 대선사 법어 동영상, 축사(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장, 정점심 국회의원,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의장), 사홍서원, 공지사항, 방생법회의식, 조영남의 작은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방생법회는 고산 스님부터 하안거 해제 후 기도정진과 사찰 간 친목도모와 불교화합 그리고 7개 시·군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취지와 의미를 담아서 개최한 것이 시초”라며 “이번 32회 방생법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일상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고성 당항포 문화행사도 번창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힐링하는 기회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본·말사 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대회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가 청정하다고 한다. 방생과 함께 스스로 무지, 욕망,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모든 업을 되돌아보고 해소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평화의 세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심 국회의원은 축사로 “불살생은 부처님 근본가르침 중 자비와 생명존중을 의미한다. 방생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불교 생명살림 등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용월사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 수륙대재


8월 17일 여수 용월사서 펼쳐진 여순 희생자 수륙대재 모습.

호남지역 한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위령재가 열렸다. 여수 용월사(주지 원일)는 8월 17일 경내에서 인천 정현사(주지 벽인)와 공동으로 ‘해원 상생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1948년 10월 19일 발발한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의 진압을 거부한 여수주둔 군인들의 봉기로 촉발된 사건으로,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5000여 명이 뚜렷한 증거나 재판도 없이 부역자로 몰려 희생당했다. 지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해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시작했다.

행사에는 원일 스님, 벽인 스님, 주철현 국회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광일, 서대현 도의회의원, 강재현, 강현태, 진명숙, 김종길, 이미경, 고용진, 구민호, 이석주, 김채경 여수시의원 등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존폐위기 순천 신광사, 단식농성 진행



순천 신광사 사부대중이 관통도로 건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도로 건설로 존폐위기를 맞은 사찰의 스님이 단식투쟁에 나섰다. 순천 신광사(주지 경빈)는 8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신광사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 사찰 존립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예정인 신광사 중요 전각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와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주지 경빈 스님과 일상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찰 스님과 신도들은 ‘신광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항의시위와 함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빈 스님은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동안 사찰을 방문하거나 설명회를 열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월 27일경 익산시청 도로관리과장이 사찰을 방문하여 공사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현재 진행되는 공사가 당초 설명과는 다르고 공사로 인한 발파와 벌목으로 예불조차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며, 미륵불의 균열과 각 전각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도로는 2019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하는 국도 27호선 순천 주암~벌교구간(3-2공구) 4차선 도로공사로, 이 구간이 완공되면 순천 신광사 극락전에서 직선거리 20m지점에 도로가 자리하며, 극락전 위로 5m 지점까지 임야 경사면으로 절개해 지나갈 예정이다.

이에 신광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항의시위와 함께 중요전각 5동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신광사는 1968년 창건한 사찰로 여러 차례 불사를 거쳐 1990년에 주 법당인 극락전을 시작으로 1992년 오방신전과 종각, 1993년 산신각을 건립해 지금의 도량을 갖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말복 맞아 무료공양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대원 스님)은 8월 16일, 말복을 맞아 ‘무더위 원기회복을 위한 무료 중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해 달라는 지역 후원자 이순연 대표(애니카랜드 고창점 & 고창 금호타이어 시몬대리점)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나눔활동에는 후원자가 직접 배식봉사에 참여해 한층 더 뜻깊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점심메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철 식생활 지원을 위한 갈비탕이 제공됐다. 고창푸드마켓·선운기초푸드뱅크의 ‘기부식품나눔행사’와 연계하여 생필품 꾸러미(쌀, 마스크, 가요CD)도 함께 나누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 행사에 함께한 어르신은 “매년 삼복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정성어린 점심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복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활력 넘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우란분절 천도재 봉행



국내 3대 지장기도 도량으로 알려진 고창 선운사 도솔암이 우란분절을 맞아 선망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우란분절 대천도재를 봉행했다.

8월 12일 극락보전앞 마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시련, 대련, 영가씻김천도, 상단불공, 제사, 이운, 소전, 방생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 씻김 전수자 김단아 씨가 진행한 영가씻김천도의식은 악사 이창규, 정효선 씨와 함께 진도씻김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솔암 총무 성본 스님은 “선망조상 천도에 갈망을 가진 신도대중의 뜻을 받들어, 불공드리는 스님들 뿐 아니라, 진도 씻김 전수자 팀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천도의식을 모두 마친 불자들은 만장과 연 가마, 반야용선을 앞세운 이운행렬로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불자들은 극락보전에서 소대가 마련된 도솔암 아래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길을 하얀 연등을 들고 만장과 반야용선을 뒤따르며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운불련, 불교리더쉽아카데미 진행



코로나19로 지친 광주운전자불자회원을 위한 강좌가 열렸다.

한국운전자불자회 광주지회(회장 이현만)는 (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의 후원으로 8월 17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중강당에서 ‘광주운전불자회와 함께하는 불교리더쉽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했다.

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이날 강좌에는 김관태 대표(경영컨설팅 살림)를 초청해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의 자세와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현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역할을 다시 일깨우고,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다시 우뚝 서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중현 스님은 축사를 통해 “늘 지역사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거리의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불제자의 자긍심과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주사 제33회 보리수템플스테이 개최



창원 불모산 성주사(주지 법안)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33회 어린이 보리수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번 보리수 템플스테이에는 25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법안 스님은 환영사에서 “방학 중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여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견하다. 사회에 진출했을 때 마음의 보물을 잘 사용하는 이들이 될 것”이라며 “자신을 관찰하고 친구들과 화합, 협조하는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 가피”라고 설했다.

첫날 일정으로는 방사배정과 함께 안전교육 및 습의(찬불가 율동연습 및 규칙과 합장, 좌복 앉는 방법, 의식가, 절하는법), 입재식 및 공양습의, 명상, 저녁예불, 삼보일배 및 참선, 사경, 사리탑돌이 등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아침예불 및 108참회, 공양, 팀별 만다라 만들기, 호흡수행, 염색 손수건 만들기, 합장주 만들기, 물놀이, 편지쓰기, 걷기명상 등이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